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지난 3월부터 심리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교육 중 하나였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싶어서 신청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갔더니 뭔가 제 생각과 달리 심리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또는 생각들로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했던 기억과 아픈 기억 모두 있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많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등을 왜 더 오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할까요? 그 아픔을 통제하려고 애쓰거나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비울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통합(integration)’을 통하여 마음을 훈련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자신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사랑, 위로, 용서, 인내심, 이해, 따뜻함을 스스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 마리아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며 어머니로서 잃어버렸던 12살 예수님을 찾아보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끔찍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어머니로서 저희에게 알려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체자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셨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이야기하며 자유인으로 소통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뜻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네’라고 응답하는 것은 다가오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약점과 결점 역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거나 순수하거나 ‘정제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혁명은 쉽지 않지만, 마리아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향력(influencer)’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제34차 세계청년대회 (2019. 파나마)

대치2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3월 16일(토)~17일(일) 대치2동 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

어주셨습니다. 후원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대치2동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



3월 23일(토)~24일(일) 전남 목포에 소재한 한국레시오마리에 기념관에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가 '감성코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지인과 친구들, 더 나아가 수용자들과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정사목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모든 봉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형폐지 입법청원 기자회견

3월 28일(목) 국회정론관에서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걸어가야만 할 더 귀한길, 곧 생명을 아끼는 길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총 902명, 연평균 19명의 사형을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간 한건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고 종신형이 입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4월 1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 살레시오회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49주년을 맞이해서 10년 장기봉사자 감사패 전달과 새로 임명된 대표봉사자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49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밀 가족 아유회

4월 10일(수)~11일(목) 경상남도 통영으로 해밀 가족 아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유회를 통해 내면의 아픔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당신과 함께

하진숙 안나_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찬미 예수님!

처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다고 저를 초대해 주던 동창에게 “이 나이에 하던 일도 슬슬 정리해야 하는 때에 새롭게 뭘 시작하는 게 조심스럽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3개월간 교육이 있으니 부족해도 잘 배워가면서 한 걸음씩 가면 말 없이 봉사하기에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상처받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면 된다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던 첫날. 겨울임에도 햇살이 밝게 종교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작 와야 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햇살이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듯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한 지 이제 겨우 삼 개월. 그들이 언제,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만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여기서 또다시 만나는 일은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게는 일 년부터 삼 년, 십 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봉사자들을 보며 젊어서부터 참 일찍 귀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면 시간이 1초도 없기에 시간을 바쳐 봉사하는 것은 생명을 바쳐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신부님들과 봉사자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참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레베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레베카는 히브리어로 ‘(가축 등을) 단단히 묶다’라는 뜻의 ‘리브카’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베카의 오빠 라반의 딸들의 이름(라헬-암양, 레아-암소)을 참조한다면 그녀의 집안이 목축업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가축’을 뜻하는 바카르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사악이 소심하고 조용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적극적이며 역동적입니다.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온 레베카는 신붓감을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낫선 사람이라고 피하기는커녕, 물을 주고는 청하지도 않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줍니다(창세 24,20).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였던 것을 생각하면(24,10) 레베카가 얼마나 당찬 소녀였는지 느끼게 됩니다. 고향의 부모를 떠나 낫선 곳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인데, 머뭇거림 없이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24,58). 남편 이사악보다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낫선 땅을 향해 걸어갔듯이 레베카 역시 길을 떠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가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레베카 두 사람 모두 낫선 곳을 향해 떠날 정도로 진취적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자기 주도적입니다. 레베카의 삶에서 하느님과의 대화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임신하였을 때,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부딪쳐 났을 때, 그때 유일하게 레베카는 주님께 문의하였다고 합니다(25,22-23). 레베카의 길을 떠남의 동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많은 패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물질적인 것에 끌려서 독단적으로 길을 떠나는 레베카의 행동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사악을 사랑한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바치라는 하느님 말씀에 순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악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사랑한 레베카는 하느님의 축복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더 많은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임수까지 써서 주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습

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영영 야곱을 만나보지 못한 듯 보입니다. 더이상 레베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악의 죽음의 기록은 있을지언정, 레베카의 죽음 이야기도 무덤에 안장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에사우와 야곱의 어머니로서 레베카는 야곱만 편애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 아이에게 더 쓰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하느님의 축복마저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물럭거리고 싶은 욕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느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온 레베카가 아들에게 좋을 것 같아 하느님 축복을 눈속임으로 가로채는 모습에서 자녀 미래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단지 오늘날에만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형제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억지로 고향과 부모를 떠나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된 야곱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소금 한 톨

원유만 베드로_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작은 소망

이해인 수녀

내가 죽기 전,
한 톨의 소금 같은 시를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한 톨의 시가 세상을
다 구원하진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도는 될 수 있겠지
힘들 때 잠시 웃음을 찾는,
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여,
맛있는 소금 한 톨 찾는 중이네

이해인 수녀님의 시 중에서 『작은 소망』에 나오는 소금처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조그만 정성과 노력이 수용자나 출소자들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어서 이 땅에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마태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남을 죄짓게 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지 않는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두고 더 기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계절이 산뜻하게 표정을 바꾸고 주위를 화사하게 색칠합니다.

저는 작년 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동면에서 깨지 못한 회색곰 같기도 하지만, 주님의 반짝이는 은총과 신부님의 보살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을 선고받고 이감을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갈 길은 확실히 멀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설렘뿐입니다.

참!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책들은 평생 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책을 사랑했지만, 이번은 더욱 각별합니다.

얼마 전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인생이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강하게 움켜쥐어도 결국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흔적을 감추겠죠?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또 뵙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를 예뻐해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의 깨끗한 회개가 신부님께도 다키를 바라며, 보내주신 서적 머리 속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편지 올리겠습니다.

2019. 3. 12.

원OO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6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6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12~4/12)

3월 ~ 4월에는 대치2동 성당 232명 교우님들과 권경현 세레나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박민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알림

- 5월 8일(수)~21일(화) 서울남부구치소 2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5월 9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5월 1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 갑곶순교성지
- 5월 17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교육 / 가톨릭회관
- 5월 20일(월)~24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2기 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레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